

제 1 회 세계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성균관대학교

한글 성명: 김은진

				균	형	을		알	고		님	이	저	더	라	도						
		지	속	되	는			코	로	나		바	이	러	스	로		인	하	여		
		누	군	가	는			이	에		목	터	지	고		또		누	군	가	는	
		무	너	저	기	도		했	다		나		또	한		그	러	했	다		흔	
		히		말	하	는		코	로	나		블	루	를		바	겨		나	가	지	
		못	하	고		감	정	기	복	이		유	독		성	한		시	기	를		
		겪	은		적	이	있	다		그	야	말	로		살	이		균	형	이		
		무	너	저		한	동	안		방	향	했	던		시	기	했	다				
				감	정	기	복	을		겪	게		되		전	말	은		이	러	했	다
		룸	메	이	트	와		함	께		한	국		위	하	를		오	게		되	
		면	서		같	이		자	취	집	을		구	하	고		살	았	는	데		
		코	로	나				바	이	러	스	가		제	만		성	했	던		조	기
		때		룸	메	이	트	는		분	가	르		돌	아	가	게		되	어		
		몇		개	월	동	안		흔	자		지	내	게		되	었	다			코	로
		나	가		아	주		성	했	던		시	기	여	서		안	전	과		건	
		강	을		위	해		최	대	한		외	풍	을		자	제	했	다		그	러
		다		보	니			사	랑	과	의		만	남	도		자	면	느	럼	게	
		줄	어	들	었	고		대	화	의		기	회	도		정	차		없	어	지	
		게		되	었	다		그	럼	게		하	루	에		한	마	디	도		안	
		하	는		날	도		있	었	고	,		시	차	가		10	시	간	이	나	

제 1 회 세계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성균관대학교

한글 성명: 김은진

되	는		친	구	와		서	로	의		밤	과		낯	이		바	귀		
때	까	지		통	화	한		적	도		있	었	다	.	밤	과		낯	이	
계	속		바	귀	는		국	과		국	의		얼	상	을		반	복	하	
다		보	니		몸	은		목	기	려	크	해	지	고		마	음	은		시
간	에		따	라	,		날	씨	에		따	라		아	무		이	유	없	이
기	복	이		심	해	졌	다	.	다	른		이	들	보	다		감	정	을	
더		민	감	하	게		바	아	들	이	는		나	였	기	에		그	때	
의		기	분	은		마	치		우	죽	의		블	랙	홀	러	검		코	
든		감	정	들	을		빨	마	들	었	다	.	시	간	이		지	나	면	
서		특	정	적	인		생	각	과		감	정	들	이		앞	승	을		
했	는	데		나	는		마	치		공	허	한		우	주	에		홀	로	
떠	있	는		작	은		먼	지	쳐	려		침	대	에		누	워		하	
승	세	물	을		했	다	.	나	는		이	를		무	한		특	정	의	
서	기	라	고		부	른	다	.												
		무	한		특	정	의		씨	기	는		생	각	보	다		그	런	게
오	래		가	지	는		많	았	다	.	무	기	려	크	한		얼	상	의	
반	복	이		무	미	건	조	함	을		조	래	하	였	고		나	는		
이	런		답	답	함	을		표	현	어		통	은		생	각	,	공	정	적
만		마	민	드	를		계	속	하	여		반	복	했	다	.	이		시	
기	의		난		마	치		하	면		종	이	가		된	듯		이	를	

제 1 회 세계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성균관 대학교

한글 성명: 김운진

더	럽	히	는		모	든		것	을		용	납	하	지		않	았	다.	
북	정	적	인		생	각	을		바	라		없	애	고	자		금	한	
마	음	에		난		허	술	한		궁	정	의		'	가	벽	'	을	
새	워	고		난		나	를		들	러	싼		하	이	는		가	벽	들
사	미	에	서		나	만	의		유	트	피	아	를		꿈	꿔	다.		그
유	트	피	아	에	서		세	상	과		나	는		모	든		것	이	
완	벽	했	고		거	정	과		아	품	미		없	는		정	정	지	역
이	었	다.		그	렇	게		무	한		궁	정	만		가	요	하	다	
보	니		거	품	미		가	득		찬		궁	정	과		선	생	미	
극	족	되	었	다.		그	리	고		그		거	품	은		아	주		되
잘	것		없	는		작	은		시	련	에	도		쉽	게		꺼	졌	다.
거	품	미		사	라	진		내		마	음	은		다	시		북	정	적
민		모	습	을		들	어	냈	다.		가	벽	을		다	시		새	워
도		결	과	는		하	상		가	는	았	다.							
		그	렇	게		무	한		북	정	과		무	한		궁	정	의	시
간	을		반	복	하	다		보	니		내		하	들	은		머	구	름
미		가	득	긴		채		하	락	품	일		비	가		내	리	거	나
구	름		한	점		없	이		또		거	을		정	도	런		해	가
쟁	쟁	했	다.		무	든	지		과	하	면		독	이		되	듯	이	
영	양	제		또	한		권	고		엄	취	를		넘	기	면		영	

제 1 회 세계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성균관대학교

한글 성명: 김은진

양 의 균 형 이 개 진 다. 극 과 극 을 달 리 는
 내 감 정 또 한 삶 의 균 형 을 개 프 렸 고
 마 음 을 빙 들 게 했 다.
 그 래 도 나 는 내 마 음 의 원 전 은 극 정
 이 라 고 판 았 다. 자 시 균 형 을 많 어 념 어
 켜 지 만 나 는 분 명 다 시 알 어 설 수 있
 는 감 하 사 랑 이 라 고 생 각 했 다. 대 선 거
 품 만 가 득 긴 령 빈 공 정 의 가 벅 이 아
 닌 바 각 특 터 탄 탄 하 게 벼 들 하 나 하 나 를
 신 경 쓰 면 서 전 정 한 마 음 의 균 형 을 찾
 고 싶 었 다. 내 가 책 은 바 뵈 온 특 서 었 다.
 난 독 품 을 의 성 하 만 큼 집 중 하 여 책 을
 많 지 못 했 던 나 였 지 만 신 기 하 게 작 버린 을
 의 식 하 지 않 고 책 에 만 집 중 하 는 수 있 었
 다. 그 때 제 말 함 이 되 어 준 책 은 헤 르
 만 헤 서 의 < 지 마 사 랑 >, 그 리 고 < 연
 금 술 사 > 라 는 책 이 었 다. 책 을 많 으 면 서
 나 는 점 차 방 향 을 명 확 게 되 었 고, 삶 의
 방 향 과 새 조 운 마 인 드 를 책 게 되 었 다.
 목 한 북 정 도, 조 권 의 북 정 도 용 남 하 지

제 1 회 세계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성균관대학교

한글 성명: 김은진

않	는	무	한	공	정	도	아	닌	,	어	둠	이	애	어	야
밖	이	더	보	난	다	는	거	과	밖	을	가	리	는		
어	둠	이	가	져	다	적	는	교	를	을	개	탄	게	되	었
다	.	그	외	에	도	좋	아	하	는	용	의	과	함	게	
하	는	산	책	,	많	은	것	을	개	탄	게	해	적	는	
명	화	감	상	도	큰	도	움	이	되	었	다	.	그	러	다
보	니	작	은	것	이	도	감	사	하	는	것	을	아	고	사
소	한	거	에	서	도	행	복	을	느	기	게	되	었	다	.
예	를	들	어	여	를	에	서	가	을	로	넘	어	가	는	
간	적	기	라	개	내	안	은	간	판	이	피	복	를		
감	싸	는	것	이	좋	아	하	는	것	을	기	분	이		
좋	았	었	다	.											
마	음	의	권	행	을	되	었	은	나	는	함	의	권		
행	도	되	었	게	되	었	다	.	참	문	등	사	미	로	
비	참	고	들	어	로	는	새	로	운	하	는	도	매	한	
기	대	가	되	는	것	을	살	게	되	었	다	.	언	뜻	
날	지	간	을	뒤	돌	아	보	는	때	,	하	는	하	는	의
하	는	은	참	다	해	로	게	예	배	다	고	말	하	고	
습	다	.													